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오는 22일 개원

환자 기다리는 진료실로 의사가 이동해 예진...진료 시스템 차별화 김성 군수 “전인적 치료서비스 대한민국 건강1번지 장흥도약할 것”

동서의학 협진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오는 22일 개원한다.

장흥군 안암면 비동리에 자리한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통합의학 적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과 의료산업육성의 4대 과제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병원은 부지 18,494㎡, 건축 연면적 9,159㎡의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약 100병상을 갖췄다.

병원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대체보완의학대학원, 약대학 등 통합의학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원광대학교)이 맡았다.

병원이 들어선 안암면 비동리 사자산 자락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편백 숲 우드랜드와 도립 스키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자연치유형 통합의료병원의 운영에 최적지라는 평가다.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이사장 신순철)은 운영 초기 제도권 의학을



중심으로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실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차원의 통합의료서비스 치료모델과 진료시스템 개발에 노력할 방침이다.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은 일반 병원과는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을 선보인다.

통상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가 의사 진료실로 방문하지만, 장흥통합

의료한방병원은 의사가 환자가 기다리는 진료실로 이동하여 예진을 한다.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예진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검진결과를 가지고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하는 통합의학 진료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현대의

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의학을 제도권에 도입한 '통합의학'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일반국민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이 73%에 이른다.

독일 의사의 75%가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고, 통증클리닉의 77%가 침술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약 38% 청소년의 12%가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보고에 의하면 보완대체의학 이용 시장은 약 40조원 규모로 매년 성장률이 12~20%에 이르며, 미국 의사의 70% 이상이 현대의학과 보완대체요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 군수는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현대의학과 한의학과 이분화된 현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절감과 전인적·포괄적 치료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건강1번지 장흥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흥=김종민 기자



무안군, 청림 도전 골든벨 퀴즈대회 승달문화예술회관서 공직자 150여명 참여

무안군은 12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직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림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과거 경직된 분위기의 청림교육에서 벗어나 재미와 흥미를 더한 '청림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등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번 퀴즈대회는 각 부서를 대표해 30개팀 90명이 참가해 열띤 응원속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참여형 청렴시책을 추진해 일상생활 속 청렴마인드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무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하고 습득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관련 다양한 사례가 문제로 출제되어 평소 업무추진 시 혼란스러웠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을 추진해 일상생활 속 청렴마인드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무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농어촌광대역망 구축 완료

도서낙도 마을도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완도군은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 확산을 통한 정보화 해소 및 농어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소규모 마을을 중심으로 농어촌 광대역망사업(BcN)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 완도군 (SKT)와 공동으로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 마을에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통신, 방송 인터넷을 하나의 광대역망으로 통합된 100Mbps급 인터넷 망을 보급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완도 제도뿐만 아니라 도서낙도 주민들까지 IPTV, 영상전화, 인터넷교육, 온라인쇼핑 등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귀농·귀어·귀촌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무료 실시

귀농·귀어·귀촌 세대가 진도군에서 토지와 주택 구입시 전국 최초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및 주택 구입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똥큰나눔!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특수 부동산 시책은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사무소(7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부동산 임대, 매

매계약 중개수수료 무료 ▲소유권이전등기 안내 ▲부동산경매 및 권리분석 ▲분양정보 등 다양한 전문 상담도 무료로 실시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귀농·귀어·귀촌인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줌으로써 귀농을 적극 유치해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해 주는 등으로 행복한 전원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고품격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기업인협의회, '대미 수출 전략 설명회' 개최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흥군과 우호협약 체결된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카운티 지역에 위치한 케스케이드타운센터 내에 장흥군 우수 농수산물 수출 및 물류센터 개설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

현지 시설 설치 등 청정 장흥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수산물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까지의 전략도 설명됐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자산공원 해상교통관제센터 거북선 모양 야간경관조명 불 밝힌다



7000만원 소요 LED등 설치

여수시가 자산공원 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13일부터 점등한다.

자산공원 위쪽에 있는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는 별다른 조명시설이 없어 야간 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부터 7000만 원을 들여 센터 건물에 LED 경관조명등을 설치했다.

특히 센터 건물은 거북선을 연상

케 해 자산공원 이순신장군 동상에 설치된 조명과 어울려 저 색다른 야경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들안공원 장식조명과 시청·여서동로터리 크리스마스스트리를 점등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이순신광장에 크리스마스스트리를 설치해 내년 2월 18일까지 점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름다운 여수의 야경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경관조명을 이용한 야경명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산타와 나누는
담양 겨울 이야기

2017 담양 산타축제

2017 DAMYANG SANTA FESTIVAL

12.15 ~ 12.31
담양읍 원도심 및 메타프로방스 일원